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이대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 529
----------	---------

제출년월일 : 2024. 9. 9.

발 의 자 : 이대구, 박태순, 김재국,
이진분, 현옥순, 김진숙,
박은정, 선현우, 한명훈,
김유숙, 최찬규, 송바우나,
이지화, 한갑수, 설호영,
유재수, 황은화 의원(17인)

1. 주 문

-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을 국토교통부의 지하화 1차 선도 사업 선정을 촉구하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안산시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지하철 4호선 안산선은 도심권역을 통과하는 지상철도로 도시 생성초기에는 도시 성장의 중요한 발전의 축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였음.
- 현재는 지상철도로 인해 신·구도심은 단절되었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며,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안산시민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음.
-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

- 안산시의 경우, 4호선 안산선 철도 전 구간이 아닌, 현실성 있는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한대앞역에서 안산역까지 5.47km 구간을 지하화 사업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축구장 100개 면적(70만 m^2)의 상부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음.
- 안산시는 용역 추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300인 시민 대토론회를 추진 하였으며, 이는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안산시의 단절된 공간구조의 통합으로 도시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을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을 촉구하며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은 1984년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그 인근에 조성될 신도시에 대한 교통수단으로 계획되어, 1988년 10월 25일, 지하철 4호선 안산선은 금정역에서 안산역 구간을 개통하였다. 이후,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2000년 7월 안산역에서 오이도역까지 연장 구간이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은 도심권역을 통과하는 지상철도로 도시 생성 초기에는 도시 성장의 중요한 발전의 축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상철도로 인해 신도심과 구도심은 시각적, 정서적, 공간적으로 단절되었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하며,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안산시민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의 지하화 사업은 과거부터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으로 나올 만큼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2년 7월 발표된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위해 지상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12월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지원할 행정적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안산시는 4호선 안산선 철도 전 구간이 아닌,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대역 앞에서 안산역 5.47km 구간을 지하화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앙대로 상부 토지 축구장 100개 면적(70만m²)의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자체 용역 추진 및 시민공감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지하화 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지하화 사업 추진이 아닌 지하화 사업 개발의 타당성을 담보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안산시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684명의 시민 중, 88%의 안산시민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찬성하였다.

더 나아가, 안산시는 300인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다.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는 마련되었으며, 안산시는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안산시의 단절된 공간구조의 통합으로 도시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도시공간의 통합은 인구유입,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 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한대앞역~안산역)의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을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2024. 9.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